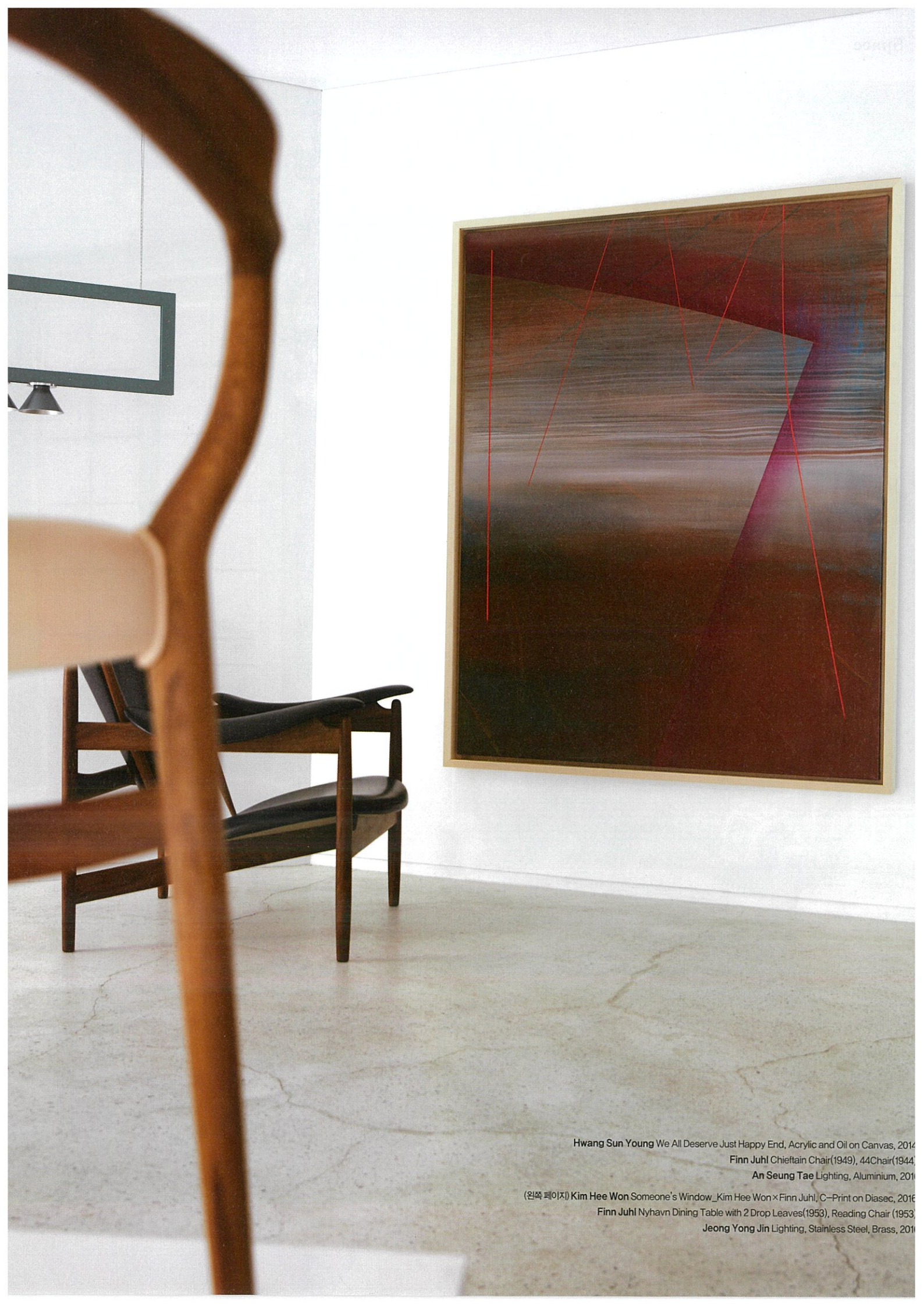




갤러리 ERD 대표 이민주 _ 김희원 + 황선영 & 핀 울

"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인 김희원이 핀 울 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촬영한 'Someone's Window' 시리즈로, 핀 울의 창을 촬영한 작품이죠." 김희원은 공간, 인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업 기간을 1~2년 이상 잡는데, 핀 울의 집 근처로 숙소를 옮기고 그가 살던 곳, 기차역, 산책로 등을 오랜 시간 걷고, 걸으며 작업을 했다고. 김희원의 창과 핀 울의 1953년 작 나무하운 다이닝 테이블, 리딩 체어가 어우러져 현대의 핀 울과 역사 속의 핀 울이 조우하는, 황홀한 아트신을 낳는다. "그의 가구는 사실 어떤 작품과도 잘 어울려요. 핀 울은 여러 장르의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했죠." 그 때문일까, 그의 가구는 그 어떤 아트 작품과도 잘 어울리진다. "4, 5월 전시 예정인 황선영 작가의 작품도 너무 좋아요. 실패와 좌절, 그 수많은 흔적을 지워나가는 작업 과정, 그 감정과 경험의 함을 캔버스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핀 울의 시그니처 체어이자 덴마크 왕이 앉아서 유명해진 1949년 작 치프테인 체어(사진 뒤쪽), 1944년에 디자인된 44체어(한정 생산으로 우리나라에는 4피스가 들어와 있다)와 함께 또 다른 추상의 풍경을 만든다. N



Hwang Sun Young We All Deserve Just Happy End, Acrylic and Oil on Canvas, 2014

Finn Juhl Chieftain Chair(1949), 44Chair(1944),

An Seung Tae Lighting, Aluminium, 2011

(왼쪽 페이지) Kim Hee Won Someone's Window_Kim Hee Won×Finn Juhl, C-Print on Diasec, 2016

Finn Juhl Nyhavn Dining Table with 2 Drop Leaves(1953), Reading Chair (1953)

Jeong Yong Jin Lighting, Stainless Steel, Brass, 2011